

학자사서를 통한 근대 도서관의 역할

The Role of Libraries in the Early Modern Times through the Characteristics and Activities of Scholar-Librarians

김 기 영 (Giyeong Kim)*

목 차

- | | |
|-------------|-------------|
| 1. 서 론 | 4. 학자사서의 약화 |
| 2. 학자사서 | 5. 결 론 |
| 3. 학자사서의 성격 | |

초 록

본 연구는 학자사서의 시대를 15세기에서 18세기로 설정하고, 대표적인 학자사서인 Gabriel Naudé(1600-1653)를 비롯한 몇몇 학자사서의 개괄을 통해 학자사서들이 도서관에 적을 둔 배경 및 도서관이 이러한 학자사서를 고용한 이유를 당시 시대적 상황과 함께 파악하고자 한다. 동 시기의 유럽은 왕조국가의 발전 및 교회의 권위 약화, 그리고 계몽주의가 점차 발전하였고, 학자들의 교류가 잦아져 학자들 스스로가 그들이 지식의 공화국(Republic of Letters)의 시민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도서관의 역할은 수집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러한 역할에 필요한 지식인 문헌학에 해박한 학자들이 사서로 봉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학자사서의 역사적 배경은 18세기부터 변화하게 되는데 이 변화의 요인과 함께 학자사서의 약화요인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빠르게 변화되는 지금의 환경에서 도서관은 어떠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며 사서는 어떠한 전문성을 사회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지를 탐색하는 데에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delineates the era of the scholar-librarian as spanning from the fifteenth to the eighteenth century and, through an overview of several major figures—including the prominent scholar-librarian Gabriel Naudé (1600-1653)—seeks to clarify both the circumstances that led scholars to be affiliated with libraries and the reasons libraries employed such scholar-librarians within their historical context. During this period, Europe witnessed the rise of dynastic states, the weakening of ecclesiastical authority, and the gradual emergence of Enlightenment thought. Intellectual exchange among scholars increased, fostering a collective self-understanding of themselves as citizens of the “Republic of Letters.” Based on this historical background, libraries placed primary emphasis on the acquisition of books, and it appears that scholars with advanced philological and bibliographical expertise were appointed as librarians to fulfill these functions. The historical foundations supporting the scholar-librarian began to shift from the eighteenth century onward. This study, therefore, considers the factors that contributed to this transformation and discusses how these developments weakened the traditional role of the scholar-librarian.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intends to offer implications for exploring the social roles libraries should assume in today’s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and for identifying the professional expertise that librarians need to be recognized for.

키워드: 학자사서, 근대도서관, 학자사서의 역할, 문헌학, 후원제

Scholar-librarians, Libraries in early modern times, Roles of scholar-librarians, Philology, Patronage

*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gkim@yonsei.ac.kr / ISNI 0000 0004 6110 9923)

논문접수일자: 2025년 10월 25일 최초심사일자: 2025년 10월 30일 게재확정일자: 2025년 11월 19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9(4): 75-99, 2025. <http://dx.doi.org/10.4275/KSLIS.2025.59.4.075>

※ Copyright © 2025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 론

직업 혹은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에 대한 관심은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사서의 역할 및 역량등에 대한 연구가 무수히 많은 것에서 익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관심에 따른 또 다른 줄기는 직업으로서 사서직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며, 특히 초기 전문사서로서 학자사서에 대한 관심이다(남태우, 조홍연, 2013). 이는 이러한 초기의 소위 학자사서의 역할과 사상을 살펴봄으로써 사서직의 전문직적 성격과 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더해 사서의 전문직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기 위함일 것이다.

학자사서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실제 그러한 논의를 찾아보려 하면 조금은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된다. 우선 학자사서(scholar-librarian)라는 용어를 찾기 어렵다. 문현정보학용어사전(문현정보학용어사전 편찬위원회, 2010)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Harrod's로 잘 알려진 Harrod's Librarians' Glossary and Reference Book(Prytherch, 2005)에도, Dictionar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Reitz, 2004)에도 표제어로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Britannica(Britannica Academic, Encyclopædia Britannica, 2025)나 Wikipedia와 같은 백과사전에도 표제어로 찾을 수 없다. 우리는 주로 Gabriel Naudé(이하 노데)(남태우, 조홍연, 2013)의 행적을 통해 학자사서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학자사는 누구인가? 노데로 대표되는 학자사는 어떤 사람이었으며, 이 사람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학자사서라 불리운 사람들

의 전기를 살펴봄은 물론 이들을 고용한 도서관의 성격, 그리고 그 도서관들을 둘러싼 상황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학자사서라 불리운 일단의 학자들의 공통된 특성과 그들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살펴봄으로써 학자사서의 사회적 역할과 나아가 당시 도서관의 역할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의 빠르게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도서관은 어떠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며 사서는 어떠한 전문성을 사회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지를 탐색하는 데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Burke(2000, 27)는 근대 지성사에 중요성이 커지는 직업의 하나로서 사서를 꼽으며 학자사서의 예로 Gottfried Wilhelm Leibniz(이하 라이프니츠), 15세기 바티칸의 Bartolomeo Platina(이하 플라티나), 16세기 비엔나의 Hugo Blotius(이하 블로티우스), 17세기 로마와 파리의 Gabriel Naudé, 17세기 칠의 Daniel Georg Morhof(이하 모르호프), 18세기 예나의 Burkhard Gotthelf Struve(이하 스트루베), 모더나의 Ludovico Antonio Muratori(이하 무라토리)를 꼽았다. Burke는 사회학자로서 이 시기의 사서를 지식의 공화국(Republic of Letters)의 주요 매개자로 정의하였지만, 이들이 사서로서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논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이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과 당시의 시대 상황을 살펴보고, 이들과 이들의 도서관이 당시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역할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역사적 접근법을 적용한다(Krathwohl, 2009). 해석에 대해 가능한 한 하나 이상의 자료를 검토하여 하

였으며, 여러 자료의 검토를 통해 좀 더 수용 가능한 해석을 하려 하였다. 다만 원 자료가 영어가 아닌 경우 번역된 자료를 이용하는 한계가 있으며, 몇몇 잘 알려진 인물 외에는 자료를 찾기 어려웠던 점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더불어 이들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이 시대 이전시대의 도서관과 사서의 특징, 이 시대의 일반학자의 특징, 이 시대 이후의 도서관과 사서의 특징과 상세히 비교할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비교는 이들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논하였다.

본 고는 우선 Burke가 나열한 학자사서 개인에 대해 개괄하며, 이들의 공통적 특징을 파악한다. 또한 학자사서들이 도서관에 적을 둔 이유와 도서관이 이러한 학자사서를 고용한 이유를 당시 여러 상황을 통해 파악한다. 나아가 학자사서가 약화된 상황과 그 배경도 당시의 변화를 통해 파악한다. 이를 통해 당시 도서관의 역할은 무엇이며, 이러한 역할 속에서 학자사서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그 의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2. 학자사서

본 장에서는 서론에서 제시한 대표적인 학자사서들을 살펴본다. Burke(2000)가 제시한 대표적인 학자사서가 근무한 도서관과 출현시기는 <그림 1>과 같다. 이들은 15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 있으며 주요 활동지역은 시기순으로 바티칸, 비엔나, 파리, 로마, 키(Kiel, 현재의 독일 북부), 예나(Jena, 현재의 독일 중부), 모데나(Modena, 현재의 이탈리아 중부) 등으로 시간적으로 유럽의 대도시로부터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며, 이때의 대도시는 플랑드르 지방이나 북부 이탈리아의 상업/금융도시라기보다 정치적 성격을 띤 대도시, 즉 한 왕조국가의 중심지(바티칸, 비엔나, 파리)이며, 이후 확산되는 도시는 당시 왕조국가로 발전하지 못한 지역(독일 및 이탈리아)인 것으로 보인다. 본 장에서는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도서관에서 재직한 소위 학자사서들의 행적을 살펴봄으로써 이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그림 1> 학자사서의 도서관 위치와 시기

2.1 Bartolommeo Platina

플라티나(1421-1481)는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로, 피렌체의 비잔틴 출신 인문주의자이자 철학자인 Argyropulos에게 사사받았으며, 피렌체를 지배하는 Medici가문의 인문주의자들과 교류하게 된다. 1462년 무렵Gonzaga 가문의 Francesco추기경을 따라 로마로 이주하였으며, 이때부터 Gonzaga 가문의 오랜 후원을 받게 된다. 로마에서는 교황 비오2세(Pope Pius II)의 교황 서기로 일을 하면서 College of Abbreviators(교황청 기록관 서기단)의 일원이 된다. 그러나 반인문주의자 교황인 바오로2세(Pope Paul II)의 등장으로 그 직을 물려나고 여러 혐의로 고문을 당하고 옥고를 치르게 된다. 플라티나는 친인문주의자인 교황 식스토4세(Pope Sixtus IV)의 취임으로 다시 교황청에서 일을 하게 되며, 1475년에는 Vatican Librarian으로 임명되었는데 이는 Vatican Library의 초대 도서관장이다. 바티칸도서관의 기원은 4세기에 존재했던 Scrinium(문고)에 두고 있으나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3세기 이후 다시 교황들이 자료를 모은 것으로 보이나 아비뇽유수 등으로 인한 잦은 이동으로 많은 손실이 있었다(Vatican Library, 2025). 1415년에 교황청은 다시 로마로 돌아왔으며, 15세기 중반 교황 니콜라오 5세(Pope Nicholas V)가 로마의 재건의 일환으로 공공도서관을 꿈꿔왔으며, 이를 구현한 것이 바티칸도서관이라 할 수 있다. 플라티나의 도서관장 취임은 그의 교황서기 및 교황청 기록관 서기의 경력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때, 당시의 도서관은 공공에게 개방되기는 했으나 기록관과의 차이가 뚜

렷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2 Hugo Blotius

블로티우스(1533-1608)는 네덜란드 학자로 오스트리아 제국도서관 최초의 공식사서이다 (송승섭, 2019). 그는 네덜란드의 델프트(Delft)에서 출생하여 프랑스와 스위스의 여러 대학에서 인문학과 법학을 공부했고, 오를레앙(Orléans)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으며, 이 때 도서관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1569년 스트拉斯부르(Strasbourg)의 아카데미에서 윤리학 교수직을 맡았으며, 오스트리아 제국도서관 사서 이전 1570년대 전반기에는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등지를 순회하며 귀족 자녀의 가정교사를 하기도 하였다(Wikipédia, 2024). 이 시기에 그는 프리자흐(Friesach, 오스트리아) 지역의 도서관 혹은 장서에 대한 코덱스 필사본인 Bibliotheca in oppido Friesach를 집필한 것으로 추정되며, 빈에서 인문주의자 및 귀족과 관계를 맺은 것, 당시 오스트리아 황제 막시밀리안 2세(Maximilian II)의 종교적 중도·관용주의(Irenicism)(Louthan, 1997, 53-66) 등이 배경이 되어 1575년 막시밀리안 2세에 의해 사서로 임명되었다. 사서직을 수행하면서 1576년에는 종교를 개신교(칼뱅주의)에서 카톨릭으로 개종한 후 빈대학교의 수사학교수로 임명되었다. 그는 또한 제국도서관 장서 목록과 당시 오스트리아의 가장 위험한 적국이었던 투르크에 대한 주제 목록을 작성하였고(Österreichische Nationalbibliothek, 2023), 귀중본 및 수고본 장서를 확장하였다.

2.3 Gabriel Naudé

노데(1600-1653)는 학자사서로서 매우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파리에서 태어나 Collège de Clermont 등 몇몇 학교에서 문학석사학위를 받았으며(남태우, 조홍연, 2013) 이후 파리와 파도바(Padova)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의료를 잠깐 수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Britannica Academic, Encyclopædia Britannica, 2025). 루이13세 시기의 정치 팸플릿을 비판한 첫 저서인 “Le Marfore ou discours contre les libelles”를 1620년에 발표하였으며, 이 저서를 통해 파리의회의 고위 관료인 Henri de Mesme의 약 8,000 Volume으로 이루어진 개인 도서관 사서로 고용되었다. 이후 1627년에 유명한 “Advis pour dresser une bibliothèque(Advice on Establishing a Library)”를 발간하였다. 1629년에는 Giovanni Francesco Bagni 추기경의 도서관 사서로 임명되어 로마로 이주했으며 곧 Barberini 가문의 Francesco Barberini 추기경의 개인사서가 되었다. 1641년에 Bagni 주교 사후 유명한 프랑스의 재상인 리슐리외(Richelieu) 추기경의 요청으로 파리로 복귀하였으며, 리슐리외 사후인 1643년에는 리슐리외를 계승한 마자랭(Mazarin) 추기경의 도서관 사서로 임명되어 마자랭도서관의 장서 및 공간을 설계하고 4만권 이상의 장서를 수집하였으나, 1652년 프롱드(Fronde) 항쟁 중에 마자랭도서관이 해체되었으며, 스웨덴 공주 Christina의 초청으로 스톡홀름으로 이주하여 있던 중 프롱드 항쟁 이후 마자랭도서관의 복구를 요청받아 파리로 이동하던 중 1653년 사망하였다(Wikipedia, 2023b).

노데는 도서관의 전반적 경영에 대한 저서를

남겼을 뿐 아니라 이를 마자랭도서관에서 구현했다는 점으로 인해 근대적 사서의 원형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도서관 이외에도 정치, 종교, 역사, 초자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을 남겼으며, 로마에서 파리로의 이동에 맞추어 라틴 고전과 이탈리아 르네상스 작품을 프랑스에 소개하고 유럽 인문주의가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이동하는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Lemke, 1991). 노데는 도서관이 모든 사람에게 열린 공적인 지식 공간이며, 그러한 지식의 집합체인 장서에 대해서 모든 주제의 대표적 저자의 저작을 포괄하고, 원문과 번역본을 함께 소장해야 한다는 포용적 수집 기준을 세웠다. 이는 노데를 후일 유럽 계몽주의 탄생의 토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 이상주의적 인문주의자로서 각인시킨다. 다른 한편으로 Clarke(1969)는 같은 활동에 대해 인문학과 자연과학 모두를 아우르는 분류체계를 고안하고, 학문 탐구의 객관성과 비판정신을 강조하며, 원천 사료에 근거한 경험적 학문의 필요를 역설함에 초점을 맞추어 노데를 실용적 제도를 설계하고 구현함으로써 근대 학문 생산의 인프라를 창시하고 정보관리를 처음 시행한 사람으로 그 의미를 두고 있다. 즉, Lemke는 인문주의자 노데를, Clarke은 사서 노데를 조명함으로써 “학자사서”的 두 가지 면을 조명하고 있다.

2.4 Gottfried Wilhelm Leibniz

라이프니츠(1646-1716)는 라이프치히에서 라이프치히대학 도덕철학 교수였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6세 무렵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개인 서재를 물려받고 이 서재에서 다양

한 도덕철학 및 신학 작품을 통해 공부하여 라이프치히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를, 알트도르프대학(University of Altdorf)에서 1666년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직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하였다. 곧 그는 마인츠 선제후의 수석장관이었던 Johann Christian von Boyneburg의 비서가 되었고, 이후 마인츠 제후국 법원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후 그는 John Frederick 공작의 초청으로 1676년 하노버 왕가의 대법원 고문관과 사서로 임명되었으며, 1691년 볼펜뷔텔(Wolfenbüttel)에 있는 헤어초크 아우구스트 도서관(Herzog August Library)의 사서로 임명되었다(Palumbo, 2018). Leibniz는 대단히 정력적으로 많은 분야에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분야의 학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 The Oxford Handbook of Leibniz(Antognazza, 2018)에 따르면 철학, 수학, 물리학, 의학, 연금술 및 화학, 광학, 역사학, 고고학, 법학, 정치학, 경제학 등이 그가 기여한 분야로 나열되어 있을 정도이다.

라이프니츠에게 도서관은 지식의 집약체이고, 인류 지식의 기억과 보존의 기관이었다. 그에게 도서관은 학문의 개혁과 공공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중심이며 그의 과학아카데미 설립 구상 및 보편기호학 및 백과사전 계획과 함께 하나의 통합된 프로젝트의 주요 구성요소였다. 도서관의 장서는 고전 저작과 핵심도서, 그리고 새로운 도서의 세 부류의 장서를 구성하기 위한 구성을 위한 신중한 선택의 결과이며 작지만 유익한 책 또한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장식용 호화본 수집으로 권력과시의 수단으로 본 당시의 일반적인 도서관 상과 거리를 두었다. 마인츠, 하노버, 그

리고 볼펜뷔텔로 도서관을 옮기면서 그는 언제나 이전보다 발전된 분류와 목록을 시도하여 자료의 접근에도 기여를 하였으며, 또한 그의 후원자들이 재정지원을 줄이면서 1690년대 들어 하노버 도서관은 침체되었으나 헤르조그 아우구스트 도서관에서 큰 성과를 거두며, Leibniz는 도서관이 생명체처럼 꾸준히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면 죽는다면 도서관의 꾸준한 재정 지원 또한 강조하였다(Palumbo, 2018). 즉, 20대부터 평생을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장서의 수집, 배열, 접근, 그리고 운영에 이르기까지 도서관의 모든 부분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2.5 Daniel Georg Morhof

모르호프(1639-1691)는 독일의 인문학자, 문학사학자, 박식가로서 Kiel 대학의 교수, 시인, 그리고 사서(도서관장)였다. 그의 저서는 문학선집 외에 “Polyhistor Literarius, Philosophicus et Practicus”라는 일종의 백과사전이 잘 알려져 있다. 1660년 Kiel 시의 교수직을 맡았고, 1665년에 설립된 Kiel 대학의 응변, 시, 역사의 교수직과 사서로 활동했다(Wikipedia, 2023a). 그는 도서관이 지식의 보존, 조직, 전달이라는 사명을 가지며, 사서는 지식의 선별과 학문의 전통을 보존하는 인문학적 중개자로서, 언어에 능통하고, 철학, 역사, 자연과학을 이해하며, 지적 인 정직함과 비판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노테와 함께 근대사서의 전문직 윤리 개념을 형성한 초기이론이라 할 수 있다. 모르호프는 자료의 분류방식도 제안하였으며 도서관을 대학, 학교, 학회와 병렬적으로 보고 후일 과팅겐 대학의 연구도서관 모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Bergholz, 1964). 모르호프는 라이프니츠와 거의 동시대 인물이며 같은 독일 지역에 있었지만 서로 교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모르호프가 근무한 Kiel 대학이 독일지역의 북쪽 끝에 위치할 뿐 아니라, 당시(1965년)에 설립되고 교수의 수도 20 명이 채 안되는 규모로(Wikipedia, 2025a)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조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점은 Bergholz(1964)가 모르호프를 ‘간과된’ 도서관학의 선구자로 이름붙인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2.6 Burkhard Gotthelf Struve

스트루베(1671-1738)는 바이마르에서 태어난 역사학자이자 박식가로, 아버지는 변호사 바이마르 궁정 추밀원이자 예나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1697년에 예나 대학의 사서로 임명되었으며, 1702년 박사학위를 받은 후 1704년 예나대학의 역사 교수로 임명되었다. 그의 명성은 주로 그의 역사학 강의와 독일 역사서에 의한 것이며, 이를 통해 1730년에 “Hof-Rath des Hoch-Fürstlichen Sammt-Hauses Sachsen”이라는 칭호와 함께 예나대학 총장을 다수 역임하였다(Wikipedia, 2025b). 스트루베는 분명 예나대학에서 사서로 재직한 것으로 보이나 사서로서의 행적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2.7 Ludovico Antonio Muratori

무라토리(1672-1750)는 가톨릭 사제이자 역사학자로 당시의 선도적인 학자중 한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모더나대학교에서 법학, 철학,

신학을 공부하고 1694년 사제 서품을 받았다. 1700년 Rinaldo 공작이 그를 모데나 공작도서관의 기록관이자 사서로 임명하였고, 사망 시 까지 이 직책을 유지하였다. 동시에 1716년에는 교구장으로서 교구를 이끌면서 다양한 문학작품을 출판하였다. 또한 교황청과 Este 공작 사이에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자 역사 연구를 통해 Este 가문의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지원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대작 역사서를 출판하였으며, 종교와 철학의 문제에 대한 저작도 출판하여, 학자로서 그리고 사제로서 높은 명성을 얻었으나(Britannica Academic, Encyclopædia Britannica, 2024), 사서로서의 행적은 알기 어렵다.

이외에도 동 시기에 사서로 알려진 인물들이 있다. Britannica(Brittannica Academic, Encyclopædia Britannica, 2025) 백과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 몇몇 인물들은 Luc Holste(1596-1661, Vatican librarian), Antonio Bonfini(1434-1503, Italian humanist), Antoine-Alexandre Barbier(1765-1825, French librarian), 그리고 John Leland(1506-1552, English antiquarian), Etienne Baluze(1630-1718, French Scholar), Guillaume Budé(1467-1540, French scholar) 등이 있으며, 이를 중 일부는 교황청 도서관 사서, 혹은 18세기 말에는 사서로 알려졌으나, 일반적으로는 인문주의자(humanist), 학자(scholar), 혹은 역사가(historian)로 알려져 있다. 이는 모르호프, 스트루베, 그리고 무라토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다.

3. 학자사서의 성격

위에 알아본 일곱명의 학자사서들은 제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공통점과 특징. 그리고 일반 학자들과의 차이점을 검토함으로써 학자사서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한다.

3.1 scholar-librarian vs. scholarly librarian

학자사서들은 도서관 사서로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저술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학문적 실무적 활동을 하였다. 플라티나는 주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문헌학 저서들과 미식(Gastronomy)에 관한 작품을 발표하였고, 교황청에서 다양한 정치적 활동을 하였으며, 노데는 “*Advis pour dresser une bibliothèque*” 외에도 정치, 역사, 종교, 그리고 군사에 대한 작품을 발표하며 당시의 주요한 인문주의자로서의 모습을 남겼다. 라이프니츠는 매우 다양한 여러 분야의 작품이 알려져 있으며, 그러한 작품 이외에도 다양한 외교활동과 과학아카데미 설립을 위한 정력적인 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고, 모르호프 또한 주로 문학사학자로 후세에 알려질 정도로 그 분야의 유명한 작품을 남겼다. 스트루베와 무라토니는 분명 사서가 생업이었으나 사서로서의 활동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을 정도로 자신들의 분야(주로 역사 분야)에 중요한 작품을 발표하였다.

라이프니츠의 경우 그의 도서관에 대한 주장은 주로 공공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요소로서 그의 다른 학자 및 정치가들과의 서신 안에 담겨져 있으며(Palumbo, 2018), 모르호프의 도서관에 대한 주장 또한 그의 저서인 “*Polyhistor*

Literarius, Philosophicus et Practicus”에 표명되어 있고 독립된 도서관과 관련 한 작품은 없다(Wikipedia, 2023a). 도서관에 대한 독립된 저작을 발표한 사람은 노데 뿐이며, 당시 많이 나타난 특정 주제에 대한 서지를 발표한 사람도 노데(정치학)와 블로티우스(투르크)뿐이다.

도서관은 이들 학자사서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였다. 모르호프의 경우 사서직은 그에게 많은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고 나아가 그가 잘 알려진 박학 저작인 “*Polyhistor Literarius, Philosophicus et Practicus*”를 저술할 수 있도록 한 주요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역사학자로 잘 알려진 스트루베와 무라토니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스트루베의 경우 사서일 때부터 인기있는 역사학 강의를 했고, 역사학 교수가 된 이후에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 강의를 하여(Wikipedia, 2025b) 그의 생업과 직결되는 것이었고, 신성로마제국이 많은 제후국으로 분열되어 있고 이에 비해 이웃인 프랑스나 영국은 강력한 왕조 국가를 형성한 이후 임을 감안하였을 때 역사학은 독일 지역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수단이 되어 스트루베 생애 시에는 물론 사후에 명성이 더욱 높아지는 요인이 되었다(Wikipedia, 2025b). 따라서 사서로서 많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은 스트루베에게 매우 중요했을 것이다. 무라토니에게도 역사학은 교황에 대항해 자신과 관련이 있는 페라라(Ferrara) 지역의 영유권을 지키기 위한 역사적 근거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Britannica Academic, Encyclopædia Britannica, 2024). 즉 그들에게 역사학은 하나의 학문적 활동이라기보다는 실용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활동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연구

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이용하기 쉬운 사서라는 직책은 그들에게 중요한 자리였을 것이다.

참고로 역사를 목적으로 하였더라도 학자사서의 경우 리아프니츠와 모르호프와 같이 여러분야를 잘 아는 박학가(Polihistor)로 명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문헌학, 그리고 역사학과 관련이 깊다. 박학은 여러 서적을 탐독하여 얻은 지식이고, 문헌학은 그 서적에 대한 학문이므로 박학가라면 문헌학에 밝을 가능성이 높고, 문헌학자라면 박학하기 쉬웠을 것이다. 또한 중세의 스콜라 철학 이후 전개는 사고의 출발점이었으며, 14세기 이탈리아 인문주의자들 이후 역사, 문학등의 학문에서 고전의 근거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므로(Ferguson, 1962) 역사가의 경우에도 문헌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또한 박학 가였다. 즉, 여기에서 소개한 학자사서의 경우 박학가로 또는 역사가로 명성을 얻었을지라도 그들의 문헌학적인 소양은 매우 탄탄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Burke(2000)가 여기에서 소개한 일곱 사람을 학자사서로 제시한 것은 이 사서들이 자신들의 일평생 사서 직책을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평생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서의 직책을 가진 사람은 더 있다. 일례로, 영국의 David Hume(이하 험)은 스코틀랜드의 철학자, 역사가, 그리고 경제학자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Jessop & Cranston, 2023). 그는 1752년부터 약 5년간 스코틀랜드의 가장 큰 도서관인 Edinburgh University의 the Advocates' Library(스코틀랜드 변호사회 도서관)에서 사서직을 수행하였다(Harris, 1966). 그는 자신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좋은 도서관 자료, 지성인으로 이루어진 마을을 적극적으로 찾아나

섰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이 직책을 추천받을 수 있었고, 이 기간 동안 그는 1754년부터 1762년 사이에 대작 영국사(The History of England)를 집필할 수 있었다(Harris, 1966; Berry, 2013).

이러한 사례를 볼 때 당시의 사서는 학자적 특성을 지닌 사서(scholarly librarian)라기보다는 학자와 사서를 겸한(scholar-librarian) 사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2 학자를 사서로 임명한 배경: 문헌학

이러한 다양한 특성을 지닌 학자사서들이 가진 공통점을 들라면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은 문헌학(phiology)에 밝았다는 점이다. 문헌학은 언어와 저작에 대한 역사적 연구를 하는 분야로 자료가 필사에서 인쇄로 넘어가고, 오랫동안 수도원에 보관된 고대 그리스로마의 필사본 저작을 통한 인문주의적 연구가 확대되며, 교황청과 국왕, 그리고 제후들 사이의 정치적 격변 속에 진본 기록을 통한 근거가 중요해진 당시의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학문 분야로 떠올랐다. 학자사서는 어린 시절이 알려져 있는 노데, 라이프니츠, 스트루베처럼 대부분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자료를 많이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점을 배경으로 20세 무렵의 젊은 시절에 이미 사서의 직책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서 직책은 그들의 문헌학적 학문 수준을 더욱 높여 준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노데나 라이프니츠처럼 당시 학자들이 많이 했던 여행을 통해서 타 지역의 서점을 방문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도 많았다. 참고로 17세기 말 파리와 로마 같은 곳에서는 당시 유행

하던 관광 목적의 도시안내서에 도서관이 소개되어 있었고, 사제인 피아차 (Carlo Bartolomeo Piazza)는 1698년에 '로마의 유명 도서관들 (The Famous Libraries in Rome)'이라는 로마의 도서관만을 안내하는 저작을 하기도 했다 (Burke, 2000).

이러한 사서들의 문헌학적 배경은 무라토니나 스트루베처럼 실제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라이프니츠처럼 스스로가 정치적인 활동인 외교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다른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 러시아 표르트 대제(Peter the Great)의 사서였던 Johann Daniel Schumacher는 1721년 차르의 명령으로 서유럽을 여행하며 과학적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여기에서 그는 네덜란드 지방의 유명한 수력 비단직조의 자동원리를 알아내는 효과적인 방법을 고안하여(David, 1995) 일종의 산업 스파이의 역할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학자사서의 문헌학에 기반한 다양한 활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는 추후에 다시 논의한다.

도서관의 관점에서 이러한 학자사서의 문헌학적인 배경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앞서 알아본 학자사서들은 대부분 근무한 도서관을 설립하는 데에 기여한 초대 사서였다. 따라서 그들의 근무 도서관과 그 시기를 보면 당시 도서관 설립의 흐름을 파악 할 수 있다. 초기에 그들의 근무 도서관은 바티칸의 교황청(플라티나), 프랑스나 오스트리아와 같은 왕조국가(노데, 블로티우스)의 대표도서관이었으나, 이후로 도서관은 신성로마제국의 제후국(라이프니츠, 모르호프, 스트루베) 및 이탈리아 한 교구의 도서관(무라토리)으로서

도서관의 설립이 한 국가를 대표하는 권위적인 기관에서 작은 지역들로 퍼져 나아가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라이프니츠가 장서를 권력 과시의 수단으로서 장식용 호화본을 수집하는 모습에서 작지만 유익한 책들을 신중히 선택하여 수집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권위를 보여주는 수단이건 내용에 가치가 있는 자산이건 장서의 수집은 매우 중요했다. 중요한 도서관은 서유럽과 남유럽에 주로 위치해 있었으며, 북부와 동부 유럽의 도서관 혹은 유사한 역할을 하는 학술기관들은 좀 더 늦게 나타나, 동부와 북부유럽의 학자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게 위해 파리와 로마 그리고 옥스포드의 보들리 도서관(Bodleian Libraries) 같은 서유럽의 도시에 방문하는 추세를 보임으로써(Burke, 2000) 도서관은 그 도시가 지식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 학자들의 방문은 장서의 이용이 목적이었으므로 높은 품질의 장서를 수집하는 것은 도서관의 핵심 요소라 판단된다.

물론 장서를 적절한 체계로 분류하여 배열하고 소장 장서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 노데의 "Advis pour dresser une bibliothèque"에도 서술되어 있고 라이프니츠를 비롯한 학자사서들이 자료의 배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노데 시절 마자랭 도서관이 약 4만여 권(Wikipedia, 2023b), 밀라노의 암브로시아나 도서관이 1609년 개관 시점에 필사본과 인쇄본을 합쳐 약 45,000권(HistoryofInformation.com, 2025), 영국 옥스퍼드의 보들리도서관이 1620년경에 약 10,500권(items)(Bodleian Libraries, 2025), 18세기 초반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도서

관이 약 32,000권(volumes and manuscripts) (Cambridge University Library, 2025), 등 시기에 따라 그 규모가 다르나 대략 5만여권 미만의 장서를 보유한 것을 고려하고, 목록을 책자형 목록으로 작성한다고 할 때 분류와 목록의 가치는 19세기 후반 듀이십진분류법과 여러 목록 규칙이 나타날 때와 대비한다면 그만큼 중요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17세기와 18세기는 대학을 비롯한 도서관의 장서 수집이 구입보다는 기증, 유증 및 배상의 형태로 이루어졌다(Weber, 2002). 또한 그 입수 시기도 일정치 않아 노데의 경우 이탈리아에서 돌아온 무렵 5,000여권, 마사랭도서관 장서 수집을 위한 유럽여행에서 14,000여권을 수집하였으며(Wikipedia, 2023b), 옥스퍼드의 보들리도서관의 경우 보들리경이 건물과 함께 2,500여권을 장서를 기증했고, 곧이어 변호사인 셸던(John Seldon)이 8,000여권을 기증하여 초기 장서를 구성하였다(Bodleian Libraries, 2025). 기증, 유증 배상의 경우 장서를 선별하여 수집하지 않았고, 노데처럼 도서관 설립 시 특별히 일회성으로 장서를 구입에 의해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출판 추세 및 주로 서점을 중심으로 한 출판유통 구조, 현재와 비교했을 때 느린 공급망, 그리고 무엇보다 장서 수집을 위한 정기적이고도 충분한 예산의 부족으로 구입에 의한 장서의 수집이 제한된 당시에 도서관 설립 시 구입에 의한 장서의 선정은 매우 중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문헌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문헌학에 밝은 학자를 사서로 봉직하게 하는 것이 필요했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상기한 조건으로 인해 본 고에서 논한 학자사서는 대부분 그 도서관의 설립 시의 사서

이다. 나아가 설립 시의 사서가 사서 스스로의 학자적 명성으로 인해 설립된 도서관의 권위와 명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설립 주체(왕가 및 고위성직자)가 좀 더 유능하고 잘 알려진, 그리고 문헌학에 해박한 학자를 사서로 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3.3 학자가 사서가 되려한 배경: 후원제 Patronage

그렇다면 왜 학자들은 사서라는 직책을 기꺼이 받아들였는가?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검토할 요소가 있다. 우선 당시 학자는 어떠한 성격의 사람이었는지, 두 번째로 학자들은 왜 현대와 같이 대학에 주로 자리 잡지 않았는지, 마지막으로 장서의 수집과 도서관의 운영 이외에 학자사서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를 차례로 검토하고 학자사서의 성격을 후원제의 틀 속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학자로 불리우는 일단의 사람들이 나타난 시기는 약 15세기부터 18세기의 기간이다. 이렇게 기간을 정한 배경은 그들 스스로를 Respublica Litteraria(Republic of letters, 학식의 공화국)의 시민이라 칭한 시기이기 때문이다(Burke, 2000). 이 표현은 국경을 초월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지칭하며, 거기에 속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간에 통용되는 관습이 있었으며, 편지와 책을 교환하고 서로 왕래하는 가상의 공동체를 가리킨다. 이 집단은 중세의 스콜라철학자, 14세기 이후의 이탈리아 인문학자들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대해서는 모호한 측면이 있으나(Ferguson, 1962) 사상적 흐름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학자(clerisy)라는 명칭은 당시에 혼히

썼던 용어는 아니며 이들은 스스로를 자식을 쓰은 사람(*docti*) 또는 학식을 쓴 사람(*literati*) 등으로 표현하였다(Burke, 2000). 여기에서는 이를 통칭하여 학자로 칭하고자 한다. 이러한 학자들은 일부 성직자가 있었으나 대부분 비성직자였다.

스콜라 철학자들이 중세 대학에 몸담고 있는 성직자였다면 이탈리아 인문학자는 주로 대학 밖에서 지유기고가, 선생, 서기청의 서기, 역사가, 가정교사 등으로 군주, 고위성직자, 그리고 사업가의 후원을 받으며 생계를 꾸려나갔다 (Ferguson, 1962). 이 15~18세기의 학자들 또한 한 이탈리아 인문학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그들의 직업은 좀 더 다양해졌다. 15세기 중반에 구텐베르크의 발명으로 시작된 인쇄술은 급속하게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갔으며 이 인쇄술은 교정, 번역, 색인작업, 저술 등으로 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인쇄업자로 독립한 학자가 있었으며, 그 이전의 영방국가와 대비된 영역국가 혹은 왕조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정부의 관리, 통치자나 귀족, 학자의 비서로 고용되기도 하였다. 지식 관리자로서의 사서 또한 학자들을 위해 새로이 추가된 직업으로 볼 수 있다(Burke, 2000).

현대에는 많은 수의 학자들이 대학에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이 시기의 학자들은 대부분 대학에 있지 않았다. 자리를 잡기 힘든 면도 있었지만, 라이프니츠의 경우처럼 대학 교수직을 제안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대학에 자리잡지 않은 배경은 무엇인가? 이는 몇 가지 배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대학교수의 구성이다. 중세부터 시작된 대학의 교수는

성직자였다. 이탈리아 인문주의자들이 대학의 학예/인문학/철학부의 강의를 일부 맡은 경우는 있으나 대부분의 인문주의자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대학 밖에 자리잡고 있었다(Ferguson, 1962). 이러한 사정은 영역국가, 왕조국가의 발전에서 비롯된 왕조의 수입 증대 및 정부의 강화에 발맞춘 관료 요구의 증대로 15세기 이후 왕조의 대학 설립(예를 들면 나폴리 대학)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교회의 대학 지원 감소, 왕조의 대학 지원 지속성의 약화로 이어져 대학의 재정을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대학교수 구성에서 비성직자가 늘어남에 따라 그 수급은 기존 대학교수 주변에서 이루어졌으며, 결과적으로는 16세기 근세 초기부터 교수의 수급이 기존 교수의 친인척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기족대학의 개념을 탄생시켰다(Weber, 2002). 이는 대학이 몇 개의 가문등의 집단에 의해 지배되는 것을 의미하며, 대학의 세속화, 탈교회화를 강화하였지만, 귀족 자제의 입학 유도를 위한 귀족 학생들의 특권 제공 등 약해진 재정과 이를 보충하려는 노력을 하게 만들었다. 즉, 두 번째로 고려할 것은 대학의 재정이다.

이러한 대학 재정의 약화와 기족대학은 학자들의 대학에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었다. 우선 기족대학은 기존 대학교수와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관계가 없다면 대학교수로 자리잡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학자가 대학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학자의 학문을 강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이는 대학의 기존 강의가 아니며 새로운 강의, 새로운 분야를 대학이 개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대학에서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고 새로운 교수를 충원하는 것이 대학의 약한 재정으로 항상 기존

교수 집단과 갈등을 일으켰다. 추가할 것은 16세기의 대학 환경이 악화된 점도 꼽을 수 있다. 16세기의 비정상적인 인구증가, 유럽 경제축의 북부이탈리아에서 플랑드르와 발트해로의 이전, 식민지의 개척, 종파적 대립의 첨예화, 초기 절대주의적 지배의 강화, 농촌과 도시의 하층민의 저항 등의 움직임은 많은 전쟁을 불러일으켰으며 빙곤, 폭동, 안전등의 문제로 교수활동, 신입생 확보, 졸업생의 사회 진출등이 어려워졌고, 이는 대학의 재정을 포함한 여러 면에서 영향을 미쳤다(Weber 2002). 이러한 대학의 성격 및 대학 환경은 학자들에게 대학이 자리를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중세부터 시작한 대학에서 교수의 역할은 전승이었다. 즉, 기존의 권위를 강의와 토론을 통해 이해시키고 전달하는 것으로 이는 대략 18세기까지 지속되었다(Burke, 2000). 학자들의 시대에 시작된 비판적, 논리적 실증은 대학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신스콜리주의적인 정통주의 관념을 고수하였다. 대학 밖에서 진행된 세속화와 공리주의의 흐름에 대부분의 대학은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물론 모든 대학이 그런 것은 아니며 네덜란드의 라이덴 대학은 새로운 정치학, 휴머니즘, 문헌학과 역사학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도 했으며 종교개혁 이후 신교에 속한 대학들 중 몇몇은 대학 밖의 흐름을 일부 받아들인 일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대학은 학자들의 새로운 추세를 18세기까지 거부하고 있었다(Weber, 2002). 이는 라이프니츠가 교수직을 거부하면서 그 성격이 맞지 않음을 이유로 든 것과 일맥상통한다. 즉, 당시 학자들에게 대학은 그리 매력적인 직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이 매력적이지 않게 된 다른 배경도 찾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일은 학자들에게 생계를 위해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선택하는 것이며, 이보다는 궁정에서 귀족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나은 것으로 치부되었다(Weber, 2002). 글래스고 대학의 교수직에 있었지만 귀족의 개인교사 자리에 교수직을 그만두고 여행을 하며 국부론을 저술하였던 애덤 스미스(Adam Smith)(Burke, 2000),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교수였으나 “Philosophiae Naturalis Principia Mathematica(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등의 저작으로 유명해 진 후 런던의 조폐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아이작 뉴턴(Isaac Newton)(Westfall, 2023)의 예에서 보듯이 교수직은 저작 활동의 장애물이며 학자들에게 매력적인 직업은 아닌 듯 보인다. 또한 학자들이 자리잡을 수 있는 대학의 철학부 혹은 학예학부의 교수의 수입은 매우 낮았다. 물론 강의가 인기가 있어 수입이 많은 교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후원이 사라지고 종교개혁과 결부된 대학의 위기, 신설 대학과 강사의 증가 등을 배경으로 교수의 수업료 수입은 계속 감소하였다. 대학교수는 교회나 국가의 관직으로 진출하는 도약대로 여겨졌으며, 대학교수는 열악한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대입 예비학교 등의 과외 교사로 활동해야만 했다. 예를 들어 16세기 나폴리 대학의 지오반니 비코(Giovanni Battista Vico)라는 수사학 교수는 1년에 100 두카트를 받았으나 수입보충을 위해 개인교수를 많이 하여야 했다(Braudel, 1992).

대학은 18세기 중반(1734) 괴팅겐 대학(Georg-August-Universität Göttingen) 설립 이후 그 성격이 변모했으나, 19세기 독일 대학교수의 수

입은 국가의 기본급과 학생의 강의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수의 하위직 강사(Privatdozent)는 국가 급여가 없거나 낮았고, 일반적으로 사적 수입에 의존해야 했으며(Ringer, 1967), 미국의 경우에도 1869-1900년 사이 교수 수는 5,553명에서 23,868명으로 급증했지만 상당 기간 급여 수준이 낮아 교수들이 목회, 법률자문, 의료행위, 개별 강의 등 겸업/부수 수입에 기대는 관행이 일반적이었다(Rudolph, 1962). 따라서 대학교수의 낮은 보수가 15-18세기에 학자가 대학에 자리 잡지 않은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보다는 가르치는 일에 대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평판, 전승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대한 비판적 시각, 궁정 생활 및 귀족과의 관계에 대한 선호, 그리고 학자로서 저술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갈망이 학자들이 대학에 가지 않으려는 배경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대학 밖의 학자들의 일은 이러한 부분을 일부 수용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직업 중 독립적인 직업인 인쇄업자나 저술가, 대중 강연자들은 저술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고, 왕실, 정부, 귀족에 예속된 서기청의 서기, 역사가, 귀족 자제의 가정교사, 왕족 및 귀족의 비서 등은 저술 환경과 동시에 궁정생활로 많은 상위 계급과의 관계 맺기가 가능하였다. 이러한 직업 중 독립적인 직업이 아닌 예속된 직업은 주로 왕실과 귀족의 후원으로 볼 수 있다. 후원제는 이탈리아 인문주의가 나타난 근세 초기부터 활발하게 나타났으며, 후원의 주체는 왕실, 귀족, 그리고 사업가 등 부유한 사람들이었다. 이는 14세기에 밀라노, 피렌체, 베네치아 등을 중심으로 한 북부 이탈리아에서 상업의 발달로 인해 생겨난 신흥 상인으로 새롭게 구성된 부

유한 상층 계급들이 자신에게 맞는 문화를 추구한 데서(Ferguson, 1962) 그 시초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인문주의가 궁정 중심이 되도록 하였고, 인문주의에 스스로의 정체성을 둔 이 계층은 예술 및 문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 많은 예술가와 인문학자를 후원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15세기 이후에는 왕조 국가, 영역 국가가 발달함에 따라 사회적 부가 국왕을 중심으로 집중하였고, 이전까지 있었던 전쟁 또한 봉건제적인 국왕-영주-기사의 구조 하에 수행되며 상비군과 용병에 의해 수행됨으로써 귀족의 중세적 의무인 전쟁을 수행할 필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귀족들은 국가의 관료 직책을 차지하고, 국왕의 궁정에 모임으로써 그들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추가로 언급할 사항은, 상업의 발달과 식민지 무역의 태동, 화폐가치의 하락 등으로 토지를 배경으로 한 귀족의 경제적 지위는 약해지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더더욱 정부의 직책과 궁정에서의 관계 등에 그들의 지위를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Ferguson, 1962).

이러한 배경은 15세기 이후 후원제가 더욱 확대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강력한 왕조 국가의 발달은 국가가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데에 노력을 하도록 하였고, 이는 국가 정부가 더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만들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왕조 국가는 그러한 경제적 능력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국가에서 필요한 일을 왕실의 후원제를 통해 학자와 예술가에게 맡기는 형태를 보이게 되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예속된 직업들(서기청의 서기, 역사가, 귀족 자제의 가정교사, 왕족 및 귀족의 비서)은 다른 측면에서는 후원제를 배경으로 한 직책으로 볼

수있다. 그들은 국왕 및 귀족들이 필요로 하는 것, 예를 들면 역사 및 문헌학적 탐구 등에 대한 저술을 헌정하면서 그들의 후원 아래 생계를 꾸렸다. 앞서 이야기한 라이프니츠의 외교활동, 노대의 정치학 목록의 저술, 블로티우스의 투르크 목록 저술, 스트루베와 무라토리의 역사 저술, 심지어는 슈마허의 외교활동까지를 포함한 다양한 학자사서의 활동은 이러한 후원제를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로 이 시기까지 학자의 저술은 그 자체로 수입원이 되기는 어려웠다. 저술로 돈을 버는 것은 학자가 하지 않아야 할 행동으로 치부되었다. 따라서 학자들은 후원자가 원하는 저술을 후원자에게 헌정하면서 지적, 정치적, 사회적, 물질적 보상을 바랄 수 있었다. 또한 저작권 보호제도가 미흡한 당시에는 저술이 판매되면 바로 해적판이 등장하여 저자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보상을 얻기 어려웠으며, 출판산업에서 경제적 이익은 주로 인쇄업자의 것이었다 (Howard, 2005).

3.4 소결

15세기-18세기의 학자들에게 있어서 대학은 들어가기 어려웠음과 동시에 학자들도 선호하지 않았고, 학자들의 문헌학적 배경은 국왕 및 귀족들이 도서관을 설립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었으며, 국왕과 귀족들은 후원제를 통해 학자들에게 신설 도서관을 맡기면서 자신들을 위해 활동을 하도록 요구했고, 그러한 후원제는 학자들이 선호하는 궁정에서의 국왕, 귀족과의 관계와 저술을 할 수 있는 많은 환경을 제공하여 학자들이 사서 직책을 선호한 것

으로 판단된다. 추가로, 이른바 학자사서는 한 도서관에 여러 명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도서관 실무를 맡는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학자사서는 현재의 전문직 사서라기보다는 도서관장이 더 적절한 지위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현대에도 구미의 경우 대학도서관 등에서 학자를 사서로 고용하여 전문 사서로서 전문정보서비스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학자-사서로 볼 여지는 충분히 있으나, 다만 그 역할이 15-18세기 사이의 학자사서들과 유사한지는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기본적으로 근세의 학자사서의 역할이 수집을 중심으로 후원자가 요구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라면 현대의 학자사서는 자신의 학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무의 중심으로 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4. 학자사서의 약화

학자사서가 언제 사라졌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학자사서를 학자 도서관장으로 이해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수많은 대학도서관장도 그 부류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물론 15세기-18세기의 학자를 현재의 대학교수와 동치시킬 수는 없으며, 현재의 대학도서관장이 문헌정보학 전공이 아니라면 문헌학에 밝은 관장을 찾기는 어렵다. 학자사서는 대략 18세기 후반부터는 그 성격이 약해지고 1876년 미국과 독일에서 사서양성기관(콜롬비아 및 괴팅겐 대학)이 생겨 전문직 사서를 양성한 이후부터 보기 어려워졌다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

령다면 학자사서의 성격이 약해진 원인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서는 환경으로서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러한 환경이 도서관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도서관은 이러한 영향을 어떻게 소화하였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는 이를 대학, 후원제, 인쇄기술, 계몽주의 및 종교개혁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4.1 대학의 변화

우선 알아보아야 할 변화는 대학의 변화이다. 대학은 18세기까지 학식의 공화국에 있는 학자들의 비판과 국왕 정부의 압력에 저항하며 중세 대학 그리고 가족대학의 성격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재정이 허락할 경우 간간히 정치학과 같은 새로운 학문을 수용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18세기 말부터 변화를 맞이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프랑스 혁명의 영향이었으며, 프랑스혁명의 배경은 계몽주의라고 할 때, 17세기 이후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 유럽에 걸쳐 나타난 계몽주의의 영향이 대학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혁명 당시 대학들은 본질적으로 구제의 상징이었으며, 1793년 완전히 폐지되고 파리의 그랑제꼴(Grandes Écoles)을 비롯한 고등전문학교가 설립되었다. 이후 나폴레옹이 유럽을 거의 통일하면서 이 고등전문학교 모델이 전파되었다. 독일에서는 1814~1815년의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나타난 경제적, 정치적 변동이 영향을 미쳐 프로이센의 대학 개혁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개혁의 내용은 학문의 자유, 연구 수행, 연구와 교수의 일치, 모든 학문 포괄 등으로 축약될

수 있는데(Weber, 2002) 이는 전승을 목적으로 하며 trivium(3학)과 quadrivium(4과)를 기본으로 하는 중세 대학 철학부의 전통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일반 교양에 치중하는 학부 과정과 고급 단계의 대학원 과정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대학 변화의 하나로 다양한 학문 분야가 대학에 진입한 것을 들 수 있다. 각국의 언어학, 미술사, 국민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민족지학, 역사학, 고고학, 전쟁사, 군사학등이 철학부에 생겼으며, 학부 또한 분화되어 철학부를 철학과 자연과학으로 나누는 등 학문이 분화되며 새로운 학문이 대학에 포함되었다. 도서관학 또한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새로운 분야로 이 시기에 대학에 진입할 수 있었다(Weber, 2002). 물론 도서관학의 진입은 환경 뿐 아니라 전문직 사서를 위한 지식과 기술의 필요성 증대라는 도서관 내부의 변화 또한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학의 확대 및 대학 성격의 변화는 이전 학자들이 선호하지 않았던 대학의 모습을 바꾼 것이었으며, 이후 학자들의 직업으로서의 대학교수는 이전의 비선호적인 태도를 바꿔게 만든 한 요인으로 파악된다.

4.2 후원제의 변화

후원제는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절정에 있었고 18세기 초반까지도 상당히 유지가 되었으나 18세기 후반부터는 상인과 산업자본이 성장하면서 시장 기반 혹은 공공 기반의 후원이 증가하고 전통적인 귀족 후원은 감소하였다. 또한, 학문과 예술 활동이 점차 제도화되고, 대학, 학회, 출판 제도가 발달하면서 개별 후원자보

다는 제도적 지원(국가, 대학, 재단)이 중요해졌으며, 출판시장, 언론매체 등이 커지면서 학자 및 예술가가 후원자 의존에서 벗어나 자립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증가하였다(Kheder, 2024). 또한 후원제의 선호에 영향을 미친 궁정에서의 생활 및 관계 또한 이 기간이 되면 사회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귀족의 후원 감소는 15세기부터 진행되었던 귀족들의 경제적 조건의 약화가 그 배경이 되며,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이 증대된 것은 16세기부터 진행된 정부의 역할 증대로 인한 지원 규모의 상승과 함께 앞서 이야기 한 귀족의 후원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학자들이 후원 외에 다른 수입을 찾게 만들었고, 대학의 개혁으로 인한 대학 문호 확대 및 성격의 변화는 대학교수의 수입 증대가 따르지 않더라도 학자들을 대학으로 향하게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의 변화와 후원제의 변화는 학자들이 후원제에 기반한 다양한 직업들에서 대학으로 향하게 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즉 학자가 사서 혹은 도서관장직을 추구하거나 제공받는 것을 어렵게 만든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서술했듯이 장서의 수사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았던 당시의 도서관에서 설립 시 이외에 학자, 특히 문헌학에 밝은 학자를 요구하는 강도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3 인쇄술의 발전

15세기 중반에 구텐베르크(Johannes Gensfleisch zur Laden zum Gutenberg)가 금속활자를 이용한 활판인쇄를 발명한 이후 인쇄술은 18세기

후반까지 큰 변화가 없었으나 19세기부터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였다. 철제인쇄기는 1803년 발명되었고, 바로 한 페이지 전체를 주형으로 본떠 재출판 시 식자의 수고를 덜어준 연판인쇄가 나타났는데, 연판인쇄는 제판을 동판에 함으로써 다른 표준판보다 가벼워 인쇄속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에 시작된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증기동력을 이용한 인쇄기가 발명되었고, 1816년에는 등근 연판을 사용하는 윤전기가 개발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인쇄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는데, 이를 적용한 사업은 전통적인 출판산업이라기보다는 신문산업이었으며, 출판산업은 윤전기 도입에 있어 좀 느린 적용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제지기술과 식자기술까지 발전하여 전반적으로 인쇄비용은 떨어지고, 속도와 품질은 향상되었다. 또한 석판 인쇄술이 도입되어 책 속에 이미지 인쇄의 속도와 품질도 향상되었다. 증기기관을 사용하지 않은 석판인쇄기가 시간당 250장(양면 125장)을 인쇄하였다면 윤전기와 증기기관을 이용한 인쇄기의 속도는 시간당 양면 1만장 수준이었다(Howard, 2005). 즉, 19세기 초반 20~30년간 인쇄술은 매우 급격히 발전되었다.

이러한 인쇄술의 발전은 17세기 이후 학자들의 저술 활동 및 계몽주의의 영향 등과 함께 출판물의 종수를 급격히 증대시켰으며, 도서관의 장서 수도 함께 증대시켰다. 예를 들면 옥스퍼드 대학의 보들리 도서관은 1620년에 약 16,000권(item)을 (Davis, 1970) 소장하였으나 1849년에는 22,000개의 수고본을 포함한 약 240,000여권의 장서를(Mackenzie, 2024) 가지고 있었으며, 미 의회도서관은 1815년에 6,487권에서 (Maloney, 2025) 1851년에는 55,000권(History,

com Editors, 2010) 그리고 1897년에는 약 840,000권으로(Library of Congress, 2006) 성장하였다. 이러한 도서관 장서의 급격한 증가는 대학에서 학문 분야의 분열 및 새로운 학문의 증가와 함께 도서관 장서의 배열과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다. 따라서 분류와 목록이 도서관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기 시작했고 좀 더 정교한 분류 및 목록 체계를 논의하고 고안하게 되었다. 19세기 후반 데이시진분류법(Dewey Decimal Classification)이 나오기 이전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새롭고 정교한 분류 및 목록체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영국에서는 1959년에 Edward Edwards가 제안한 town library를 위한 분류안(Hodgson, 2022) 등 다양한 분류안이 나타났다. 또한 목록에 있어서도 도서관 장서 규모와 함께 이용자 수가 늘면서 도서관 장서 전체를 훑어보기 위한 목록의 중요성이 커지며, 인쇄목록, 카드목록, 통합목록 등의 방식이 논의되고 도입되기 시작했다(Coyle, 2016). 이는 도서관의 핵심 기능을 장서의 수집에서 장서의 접근과 정리로 이동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4.4 계몽주의와 종교개혁의 영향

계몽주의는 17세기에 뿐만 아니라 18세기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나타난 역사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합리적이고 세속적이며 자유롭고 과학을 기반으로 한 민주적인 세계관으로 이해할 수 있다(Grayling, 2008). 계몽주의의 가장 큰 업적으로는 사람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한 저작이며 이것이 디드로(Denis Diderot)의 백과전서(*The Encyclopédie, ou dictionnaire raisonné des sciences, des arts et des métiers*)이다.

계몽주의자들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수집하여 백과사전을 만들고, 이 지식을 전달하고 백과사전으로 교육하여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교육에의 관심은 교육이 특정 계급만의 특권이 아니라 시민 전체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인식으로 확대되어 공교육의 개념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공교육 개념을 기반으로 교육은 국가정책의 일부로 인식되었고, 교육의 대중화 세속화 합리화를 주장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한 프랑스어를 사용한 실용적 교육이 강조되며, 이는 문해율과 출판물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Chen, Xia, & Xie, 2021).

독일에서는 종교개혁의 전통 아래 프랑스의 공교육과 유사한 의무교육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이를 흡볼트의 교육개혁 하에서 보편교육(Allgemeinbildung)의 개념으로 정립하였다. 루터(Martin Luther)는 종교개혁이 한창이던 1524년의 한 서한에서 모든 남녀어린이가 글을 읽을 수 있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Luther, 1524) 하여 문해교육을 신앙의 의무로 간주하였고, 나아가 이러한 교육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여 국가에게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웠다. 이를 기반으로 보편교육을 19세기 초반에 정립하였고 1871년 독일제국이 통일되면 서 전국의 의무교육도 통일시켰다(Cook, 2009).

이러한 배경에서 19세기 초에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였다. 1828년 프로이스커(Karl Benjamin Preusker)는 독일 작센주에 공공도서관을 설립하였다. 이 도서관은 이전의 도서관들이 학술적인 성격을 떤 것이었다고 할 때 대중의 이용을 위한 최초의 도서관이었다고 할 수 있다 (Hoare, 2015). 이 도서관은 교회의 주일학교,

그리고 상공인조합과 연결되어 시민들의 직업적 개인적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았고 1833년에 지역의회에서 마을도서관(town library)로 승인되었다. 프로이스커는 상인으로 초기 경력을 쌓다가 군인으로 복무한 후 늦은 나이에 작센주 그로센하인(Großenhain)에서 왕실세무관으로 봉직하며 지역고고학을 연구하였고, 도서관을 설립한 이후 도서관 운영에 헌신하였다. 그는 마을도서관에서 국립도서관으로 이어지는 도서관 체계와 다양한 특수도서관을 제안하기도 하였다(Vodosek, 2010; Wikipedia, 2024). 그의 도서관 이름은 Vaterländischen Bürger-Bibliothek(Patriotic Citizens' Library, 애국시민도서관)으로 이름에서부터 시민 대중의 개인적 발전을 위한 이용을 전제하고 이전의 학술적 도서관들과 성격을 달리하여 계몽주의 및 독일 종교개혁의 영향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또한 프로이스커는 군 제대 후 라이프지히 대학에서 수학하고 일시적으로 고고학에 전념한 일은 있으나, (박사)학위 및 문헌학적 배경 등 이전의 학자사서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특성을 가지지는 못하였다는 점에서 학자사서들과 대비된다. 이런 면에서 프로이스커를 19세기 전반에 유럽과 미국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도서관이 나타나는 시기를 대표하는 인물로 이해할 수 있다. 프로이스커는 이전의 학자사서와는 뚜렷히 대비되는 인물이었으며, 그의 도서관은 이전의 학술적 도서관과는 명확히 대비되는 새로운 성격의 도서관이었다.

4.5 소결

18세기 후반부터 도서관을 둘러싼 환경의 변

화는 이전의 도서관과는 다른 도서관을 요구하였다. 후원제의 약화는 학자사서를 도서관이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고, 대학의 변화는 학자들이 그 대안으로서 자신들의 생계를 대학에서 찾을 수 있게 하였다. 학자들의 활동, 계몽주의, 인쇄술의 발달은 도서관의 장서량을 빠르게 증가시켜 장서의 배열, 탐색, 접근이 도서관에서 점점 중요해지게 만들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사회에서는 계몽주의와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일반 시민 대중의 자기계발을 위한 도서관이 요구되었다. 이는 도서관의 인력으로 이러한 도서관 내부적 문제 (자료의 탐색 및 접근, 일반 시민 대상 서비스)를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을 요구하게 되며, 이러한 사람, 즉 사서는 이전의 도서관장, 장서 수집과 선택을 위한 학자사서와는 다른 성격과 역량이 요구되어, 학자사서의 시대는 점점 저물게 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Burke(2000)가 제시한 일곱 명의 학자사서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생애와 업적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 속에서 그들의 공통점을 파악하고, 그들이 사서가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학자사서가 약화된 배경을 18세기 후반부터 나타난 사회적 변화의 도서관에의 영향을 통해 알아보았다. 학자사서가 나타난 시기는 대략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근세(early modern period)가 르네상스부터 산업혁명 전까지의 기간이라고 할 때 학자사서의 출현 시기와 거의 일치한

다. 즉 유럽의 근세는 도서관의 관점에서 학자사서의 시대이다. 따라서, 학자사서를 살펴보는 것은 근세 유럽 도서관의 성격을 파악하는 의미를 지닌다.

학자사는 학자적 역량을 가진, 특히 문헌학적 배경을 가진 학자가 사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학자적 사서라기 보다는 학자이자 사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학자사는 당시의 대학이 지식의 공화국에 소속된 학자들이 선호하는 직장이 못되어 학자들이 대학 밖에서 직업을 찾기를 원하였고, 국왕과 군주, 그리고 교회는 권위의 강화를 위한 도서관의 설립을 위해 혹은 정치적 목적으로 문헌학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후원제를 이용하여 문헌학자를 사서로 임명하였다. 이러한 학자사서에게 주 업무는 장서의 선정과 수집이었는데, 이러한 장서의 선정과 수집이 현재의 도서관과 같이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아니었으므로 특정 주제목록과 역사들의 저술과 외교 등의 다양한 그리고 후원자가 요구하는 일을 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노예는 도서관의 운영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인, 즉 학자사서 중 좀 더 현대적 전문직 사서에 가까운 인물로 판단할 수 있다.

18세기 말, 산업혁명이 가까워지는 시기 유럽은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를 보였다. 도서관 및 학자사서들과 연관된 변화로는 우선 대학의 변화로 대학은 다양한 실용적 학문과 학문의 분화를 수용하고 교수의 역할을 이전의 지식 전승에서 연구로 변화시켜 학자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한 편으로 후원제는 18세기 말부터 산업자본 및 상업자본의 발전, 귀족의 경제적 지위 약화, 정부의 역할 확대 등에 영향

을 받아 약화되어 학자사서를 지탱하던 경제적, 제도적 토대가 약화되었다. 따라서 학자들은 과거와 달리 대학 교수직을 그들의 생계수단으로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이전부터 나타났던 지식의 공화국, 계몽주의의 영향과 함께 19세기부터 진행된 인쇄술의 빠른 발전은 출판물을 증대시켰으며, 이와 함께 도서관의 장서량도 빠르게 증가하여 도서관에서는 장서의 수집과 더불어 장서의 배열, 텁색, 접근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학자사서 시대의 장서수집 못지않게 배열, 텁색, 접근을 다루는 역량이 도서관 직원에게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는 전문직 사서의 출현에 배경이 되었다. 계몽주의와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사회에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이의 일환으로서 일반 대중 개개인에게 문해력 향상과 계몽주의에 입각한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이 도서관에게 요구되었으며 19세기 들어서는 이러한 일반 시민 대상 도서관과 새로운 배경을 가진 사서가 출현하였다. 이러한 18세기 말 이후의 변화는 크게 도서관 내부에 두 가지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였는데 하나는 자료의 배열, 텁색, 접근, 즉 분류 및 목록의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서비스의 역할이었다. 이는 19세기 후반 전문직사서의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배경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학자사서 시대의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은 ‘수집’이라고 할 수 있다. 학자들은 도서관에 장서를 이용하기 위해 전 유럽에서 모였으며, 학자들에게 유용한 장서가 있다는 것은 그 도서관이 있는 도시가 유럽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장서는 근거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문현학적 배경을 가진 학자사서는 수집을 중심 역할로 하는 당시의 도서관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사람이었다.

다만 이러한 학자사서 시대의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 이전의 수도원도서관 시대와 그 이후 대학 및 공공도서관 시대의 도서관의 역할과의 비교가 요구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자사서 시대에 집중하기 위해 이를 다루지 못했다. 향후에는 도서관 변천에 있어서 개별 시기의 구분 및 각각의 시기

에 도서관의 주된 역할을 규정하고,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시대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또 다른 한계는 학자사서 시대의 전반을 살펴보는 데에 집중하느라 그 시대의 일시적, 지역적 움직임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이다. 향후에는 역사 속에서 지역적이고 일시적인 도서관의 움직임에 좀 더 집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도서관의 시대적 역할 규명이 현재 우리가 처한 급속한 주변환경의 변화 속에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파악하고 탐색하는 데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남태우, 조홍연 (2013). Naudé의 도서관 사상 연구: <la Bibliothèque Mazarine>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3), 363-384. <http://dx.doi.org/10.4275/KSLIS.2013.47.3.363>
- 문화정보학용어사전 편찬위원회 (2010). 문헌정보학용어사전 (개정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송승섭 (2019). 문명의 뇌, 서양 도서관의 역사. 서울: 조은글터.
- Antognazza, M. R. ed. (2018). *The Oxford Handbook of Leibniz*.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Bergholz, H. (1964). Daniel Georg Morhof, Overlooked precursor of library science. *Libri*, 14(1), 44-50. <https://doi.org/10.1515/libr.1964.14.1.44>
- Berry, C. J. (2013). David Hume (Major Conservative and Libertarian Thinkers Series). New York, NY: Bloomsbury Academic.
- Bodleian Libraries (2025). The Bodleian Library Oxford. Available: <https://visit.bodleian.ox.ac.uk/files/historybodleianpdf>
- Braudel, F. (1992). *Civilization and Capitalism: 15th - 18th Century*. Volume 1: *The Structures of Everyday Life: The Limits of the Possible*. Translated from French by Siân Reynold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ritannica Academic, Encyclopædia Britannica (2024). Lodovico Antonio Muratori. Available: <https://academic.eb.com/levels/collegiate/article/Lodovico-Antonio-Muratori/104615>.
- Britannica Academic, Encyclopædia Britannica (2025). Britannica Academic. Available: <https://academic.eb.com/levels/collegiate>
- Burke, P. (2000). *A Social History of Knowledge - From Gutenberg to Diderot*. Cambridge, UK: Polity Press.
- Cambridge University Library (2025). History of Cambridge University Library. Available: https://www.lib.cam.ac.uk/about-library/history-cambridge-university-library?utm_source=chatgpt.com
- Chen, X., Xia, J., & Xie, Y. (2021). Education during the enlightenment: Public education and social reform. *BCP Education & Psychology*, 3, 71-77.
- Clarke, J. A. (1969). Gabriel Naudé and the foundations of the scholarly library. *The Library Quarterly: Information, Community, Policy*, 39(4), 331-343.
- Cook, T. G. (Ed.) (2009). *The History of Education in Europe* (Routledge Library Editions: History of Education). New York, NY: Routledge.
- Coyle, K. (2016). The evolving catalog: Cataloging tech from scrolls to computers. *American Libraries*, Jan 4, 2016.
- David, K. (1995). Openness or secrecy? Industrial espionage in the Dutch Republic. *Journal of European Economic History*, 24(2), 333-348.
- Davis, D. G. (1970). Problems in the life of a university librarian: Thomas James, 1600-1620. *College & Research Libraries*, 31(1), 43-49.
- Ferguson, W. K. (1962). *Europe in Transition, 1300-1520*. Houghton Mifflin. 이연규, 박순준 역 (1989). *서양근세사: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 펴주: 집문당.
- Grayling, A. C. (2008). *Britannica Guide to the Ideas that Made the Modern World: The People, Philosophy and History of the Enlightenment*. London, UK: Robinson. 이정인 옮김 (2017). *근대의 탄생: 브리티시 필수 교양사전*. 펴주: 아고라.
- Harris, M. H. (1966). David Hume: Scholar as librarian. *The Library Quarterly: Information, Community, Policy*, 36(2), 88-98.
- History.com Editors (2010). Fire Ravages Library of Congress. Available: <https://www.history.com>this-day-in-history/december-24/fire-ravages-library-of-congress>
- HistoryofInformation.com (2025). Federico Borromeo founds the Biblioteca Ambrosiana, the second “public” library in Europe. Jeremy Norman’s HistoryofInformation.com: Exploring the History

- of Information and Media through Timelines. Available:
<https://www.historyofinformation.com/detail.php?id=1569>
- Hoare, P. (2015). Europe. In Richards, P. S., Wiegand, W. A., & Dalbello, M. eds. *A History of Modern Librarianship: Constructing the Heritage of Western Cultures*. Santa Barbara, CA: Libraries Unlimited, 1-67.
- Hodgson, J. R. (2022). Classified by their classifications: Nineteenth-century library classifications in context. *History of European Ideas*, 48(5), 499-517.
<https://doi.org/10.1080/01916599.2021.1953561>
- Howard, N. (2005). *The Book*. Westport, CT: Greenwood Publishing Group. 송대법 읊김 (2007). 책, 문명과 지식의 진화사: 파피루스에서 e-북, 그리고 그 이후. 서울: 플래닛미디어.
- Jessop, T. E. & Cranston, M. (2023). David Hume. *Encyclopedia Britannica*. Available:
<https://www.britannica.com/biography/David-Hume>
- Kheder, A. (2024). The role of patronage in art history: A driving force for creativity and culture. KHEDERPAINTINGS. Available:
https://www.khederpaintings.com/post/patronage-in-art?srsltid=AfmBOopMPWmUtGdCte2TA7STmNVQqhVAZ6H9I6tp9r600_sKkU0xDKzs
- Krathwohl, D. R. (2009). *Methods of Educational and Social Science Research: The Logic of Methods*. Long Grove, IL: Waveland Press Inc.
- Lemke, A. B. (1991). Gabriel Naude and the ideal library. *The Courier*. 280. Available:
<https://surface.syr.edu/libassoc/280>
- Library of Congress (2006). The Library of Congress, 1800-1992. In *Jefferson's Legacy: A Brief History of the Library of Congress*. Available:
<https://web.archive.org/web/20110312165046/http://www.loc.gov/loc/legacy/loc.html>
- Louthan, H. (1997). *The Quest for Compromise: Peacemakers in Counter-Reformation Vienna*.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uther, M. (1524). An die Ratsherren aller Stadte deutscher Landes, daß sie christliche Schulen aufbauen und halten sollen. In Metzger, W. eds. (1996). Band 4 der Calwer Luther-Ausgabe. Stuttgrat, Germany: Calwer Verlag, 151-184.
- Mackenzie, R. (2024). A brief history of the Bodleian Library. Oxford Summer Courses. Available:
<https://oxfordsummercourses.com/articles/a-brief-history-of-the-bodleian-library/>
- Maloney, W. (2025). Book(s) burning: The library survived two 19th-century fires. Library of Congress Blogs. Available:
<https://blogs.loc.gov/loc/2025/04/books-burning-the-library-survived-two-19th-century->

- fires/
- Österreichische Nationalbibliothek (2023). 1575: Hugo Blotius: First imperial librarian. Available:
<https://www.onb.ac.at/en/more/about-us/timeline/1575-hugo-blotius-first-imperial-librarian>
- Palumbo, M. (2018). Leibniz as librarian(Ch. 34). In Antognazza, M. R. Ed. *The Oxford Handbook of Leibniz*.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609-619.
- Prytherch, R. (2005). *Harrod's Librarians' Grossary and Reference Book* (10th ed). Hants, UK: Ashgate Publishing Limited.
- Reitz, J. M. (2004). *Dictionar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Westport, CT: Libraries Unlimited.
- Ringer, F. K. (1967). Higher education in Germany in the nineteenth century.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2(3), 123-138.
- Rudolph, F. (1962). *The American College and University: A History*. New York, NY: Alfred · A · Knopf.
- Vatican Library (2025). History. Available:
<https://www.vaticanlibrary.va/en/the-library/history-of-BAV.html>
- Vodosek, P. (2010). Preusker, Karl Benjamin (1786-1871). In Michael F., Suarez, S. J., & Woudhuysen, H. R. eds. *The Oxford Companion to the Book*, Volume 2.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1050-1051.
- Weber, W. E. (2002). *Geschichte der Europäischen Universität*. Stuttgart, Germany: W. Kohhammer GmbH.
- 김유경 옮김 (2020). 유럽 대학의 역사.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 Westfall, R. S. (2023). Isaac Newton. Encyclopedia Britannica, Available:
<https://www.britannica.com/biography/Isaac-Newton>.
- Wikipedia (2023a). Daniel Georg Morhof. Wikipedia. Available:
https://de.wikipedia.org/wiki/Daniel_Georg_Morhof
- Wikipedia (2023b). Gabriel Naudé. Wikipedia. Available:
https://en.wikipedia.org/w/index.php?title=Gabriel_Naudé&oldid=1142458222
- Wikipédia (2024). Hugo Blotius. Wikipédia. Available:
https://fr.wikipedia.org/wiki/Hugo_Blotius
- Wikipedia (2024). Karl Benjamin Preusker. Wikipedia. Available:
https://de.wikipedia.org/wiki/Karl_Benjamin_Preaske
- Wikipedia (2025a). Kiel University. Wikipedia. Available:
https://en.wikipedia.org/wiki/Kiel_University

Wikipedia (2025b). Burkhard Gotthelf Struve. Wikipedia. Available:
https://en.wikipedia.org/wiki/Burkhard_Gotthelf_Struve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Library Terminology Committee (2010). The Gr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vised Edition). Seoul, Korea: Korean Library Association.
- Nam, Tae-Woo & Cho, Heung-Yeon (2013). Study on the thought of library of Naudé: from the perspective of la Bibliothèque Mazarin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3), 363-384. <http://dx.doi.org/10.4275/KSLIS.2013.47.3.363>
- Song, Sung Sup (2019). The Brain of Civilization: A History of Western Libraries. Seoul, Korea: Cho-eun-geul-teo.

